

화협동정

● 일본방재유관기관 파견연수

협회부설 방재시험소 김연구대리와 박승규직원은 3월11일부터 4월24일까지 일본 건재시험센터 등 일본내 4개 방재유관기관에서 파견연수를 받는다. 연수내용은 방화재료 난연성 시험과 방내화시험, 알콜포시험기준 등 각종 시험연구와 검정유지시험이다.

● 홍보필름 추가제작

홍보부는 본·지부에서 계속 해온 홍보영화상영으로 일부 필름이 노후됨에 따라 피난시설 및 소화시설을 비롯한 영화필름과 비디오테이프 등 기존 홍보영화를 복사해 26편을 추가 제작,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 FILK인증품목 27개로

방재시험소 인증업무실은 (주)세진의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방전자산업(주)의 광전식·정온식감지기, 럭키 DC실리콘(주)의 내화충전재인 Silicone RTV Form에 대해서 FILK 인증마크를 부여했다. 이로써 인증품목은 16개에서 27개로 늘어났다.

● 방재관련자료 조사작업진행

협회는 전문방재기관으로의 역할 충실과 방재관련업무 작업개발에 참고하고자 국내외 총 31개 관련기관을 통한 자료조사계획을 마련,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KEMPER 보험그룹과 FMS, Loss Prevention Council, 소방설비안전센터 등 11개국 27개기관에 대해 방재업무운영상태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전문적인 자료를 조사하게 된다.

● 한전 변전소 소방시설 자문

한국전력공사 송변전건설처 동서울건설소 소장 등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방재시험소를 방문해 변전소소방시설 보강을 위한 성능시험 등에 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

● 독립기념관 소화설비 기술 자문

방재시험소는 독립기념관으로부터 할로겐화물 소화설비작동에 대한 기술자문요청에 따라 지난 2월14일 동 건물내 동력동에 설치된 소화설비에 대한 조사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자문의뢰는 독립기념관 동력동내 할로겐화물 소화설비가 화재발생이 안된 상태에서 작동하여 할론 1301가스가 방출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원인규명을 위해 실시된 것이다.

● 화재예방스티커 제작

홍보부는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경각심을 고취시키기위해 건물보일러실과 기관실, 위험물 사용장소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부착할 화재예방 스티커를 제작, 본지부로 배포해 이용하고 있다.

● 건재제조업체 간담회

(주)금강, (주)삼손퍼어라이트, (주)벽산 등 건재관련업체 7개사 기술연구관계자 11명이 함께 한 건재

제조업체 간담회가 지난 2월21일 방재시험소에서 있었다.

방재시험소 기동용가열로 완공을 계기로 건재생산업체의 90년도 전망과 품질향상방안이 함께 논의된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인증업무와 새로운 가열로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해 의견교환을 가졌다.

● 기동용 가열로 완공

협회가 내화피복구조의 성능시험을 위해 한국해사기계연구소를 통해 제작한 기동용가열로 2차 마무리공사가 완료되어, 앞으로 기존의 벽용가열로와 수평가열로, 소형벽용가열로에 이어 모든 건축구조의 내화성능을 시험할 수 있게 되었다.

유효가열높이 3m에, 4면 12개의 경우버너가 설치되었고 표준내화곡선을 따라 674,940kcal/h 열량조절이 가능하며, 시험체 반출입을 위해 한쪽면을 유압으로 개폐할 수 있는 이동식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화재시 기동부재의 내력성을 측정기 위해 최대 3백톤의 하중을 가할 수 있는 재하장치를 부착했다.

또한 시험중 가열로의 온도와 압력을 감응기와 연결된 각종 제어장치를 거쳐 컴퓨터에 의해 설정된 표준가열 온도곡선에 따라 자동제어되고, 실험데이터 역시 컴퓨터로 입력·처리·분석된다. ㉞

보험계동성

● 재무부장관 취임

정부는 지난 3월17일 재무부 장관에 鄭永儀(53) 증권감독원장을 임명했다.

鄭장관은 경남 하동출신으로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 62년 재무부 사무관으로 출발, 재무부 이재국장·금융국장·기획원 차관보·재무부 2차관보·차관·산업은행총재·증권감독원장을 역임한 정통 재무관료출신으로 말끔한 성품이 돋보인다.

부인 김순자여사와의 1녀를 두고 있다.

● 「모집체제 개선추진위」 구성

보험감독원과 손보업계는 공동으로 모집체제확립을 위한 정책전환 및 모집체제정비를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동 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대리점체제 및 대리점수수료 체제개선을 검토, 대리점모집조직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 보험감독원

9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험감독원은 올해 주요업무방향을 보험산업의 체질강화로 결정하고 △보험경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제고 △보험가입자 권익보호 △보험감독업무의 능률성 확보 △조사연구기능의 강화와 전문인력양성 △내부관리업무의 능률적 수행 등을 중점추진과제로 수립했다. 특히 국민복지수요의 증진에 따라 사회보장적 기능으로서

의 보험역할증대 및 보험산업의 공공성과 공신력제고, 보험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 앞서 5대과제에 역점을 두고 지도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 대한보증보험

창립 21주년 기념식

대한보증보험(사장 전석영)은 2월19일 창립 21주년을 맞아 동사 3층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번 창립 21주년 기념식에서 동사는 오철령 연구개발장의 68명을 장기근속사원과 우수사원으로 선발, 수상했다.

● 국제사 창립

43주년 기념식

국제화재해상보험(주)(사장 이경서)는 2월 1일 창립43주년 기념식을 당사 회의실에서 갖고 장기근속직원 16명에 대한 시상상을 가졌다.

● 자보사 창립28주년 기념식

한국자동차보험(주) (사장 손건래)는 지난 3월2일 19층 강당에서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28주년 기념식을 갖고 장기근속자 52명과 우수직원 및 모집인을 표창했다.

● 안국사 창립38주년 기념식

안국화재해상보험(주) (사장 손경식)는 지난 1월25일 3층 대회의실에서 창립38주년 기념식을 갖고 장기근속자와 우수모집인 및 대리점을 표창했다.

● 계약자 통지의무

서면으로 해야

계약자의 통지의무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두통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2월6일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보험계약자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을 이전한 후 그 사실을 대리점 사용인에게 구두로 알린 뒤,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당했을 경우 계약자는 약관에 정해진 통지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 럭키사 창립31주년

기념식

럭키화재해상보험(주) (사장 이휘영)는 지난 1월4일 본사 14층 연수실에서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31주년 기념식 및 90년 시무식을 갖고 장기근속자 및 우수직원을 표창했다.

● 손보단 친선 바둑대회

대한손해보험협회(회장 박봉환)는 지난 2월9일 바둑을 통한 손해보험업계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제3회 손보단 친선 바둑대회를 대한재보험(주) 강당에서 개최했다.

13개 회원사를 비롯 유관기관등 16개 팀이 열전을 벌인 이날의 결과는 해동화재팀이 우승, 한국자보팀이 준우승, 안국화재와 럭키화재팀이 각각 3위를 차지했다. ☉

소방계동정

● 내무부장관 취임

정부는 지난 3월17일 내무부 장관에 安應模(60) 안기부1차장을 임명했다.

安장관은 황해도 출신으로 53년 순경으로 경찰에 투신 충남도경국장, 해양경찰대장, 치안본부장, 대통령 정무2수석, 충남지사, 조달청장, 안기부2·1차장을 역임, 업무추진력이 강하고 판단이 빨라 일처리가 매끄럽다고 한다.

부인 李桂浩여사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고 있다.

● 소방국 인사이동

정부는 지난 89년 12월27일자로 김덕영(48) 지방자치기획단장을 소방국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김국장은 충북 증원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직에 투신, 내무부 법무담당관, 재정과장, 청주시장 등을 역임했다.

이어 90년 1월13일자로 종로소방서장에 안갑수, 동대문소방서장에 이용만, 강동소방서장에 김진호, 성북소방서장에 김민술, 성동소방서장에 허의욱, 내무부 지도계장에 이범진, 내무부 안전계장에 이명용소방정을 승진 또는 전보발령했다.

지난 2월27일에는 내무부소방과장에 채규정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 2과장을 전보발령했다.

● 60개 군에 소방관서 신설

내무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고 날로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소방관서가 없는 60개 군지역에 60개의 소방관서를 설치하는 한편 백63대의 소방차량을 93년도 까지 증차 배치기로 했다.

● 89년도 화재통계 분석

내무부에 따르면 89년도 한해동안 전국에서 1만2천7백4건의 화재가 발생, 1천5백14명의 인명피해와 2백24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건수는 88년의 1만2천5백7건보다 1.6%증가했으나 지난 5년간의 연평균증가율 10.6%에 비해 증가 추세가 크게 둔화됐으며, 인명 및 재산피해도 88년보다 각각 2%, 35.7%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 장소는 주택, 공장, 차량, 상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인별로는 전기, 담배, 방화, 불장난의 순으로 나타났다.

● 89년도 생산성대상 수상

동방전자산업(주) (대표이사 최만형)는 꾸준한 기술혁신과 제품개발로 88년도에 이어 89년도 생산성대상 부문별중 기술혁신부문을 수상했다.

동사는 다중전송방식에 의한 D-MUX 종합방재시스템, LED Jumbovision Display장치, SA-20 단독형 연감지기 UL인증획득, 고발포 제네레이터 등을 개발, 이분야의 수입대체효과를 높였다.

● 소방차 53대증차 예정

서울시소방본부는 90년말까지 소방서1개소와 소방파출소3개소를 신설하며 소방차 53대를 증차한다. 또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 60개소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되고 현재 6명씩 35개대인 119구급대를 60개대로, 20명씩 3개대인 구조대를 5개대로 늘리기로 했다.

● 자동소방설비 특별점검

서울시 소방본부는 1월 한달간 계속된 한파로 인해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동파 등 작동상의 이상유무를 살피는 특별점검을 병원, 공장, 집회장 등 3천70개 설비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 고지대 식수지원

지난 구정을 전후한 26~29일까지 4일간 서울시소방본부에서는 계속된 혹한으로 동파를 막으려 저지대 각 가정에서 수도를 틀어놓아 수압이 떨어지는 바람에 식수난을 겪은 고지대 39개지역에 소방서 물탱크차를 동원, 식수를 공급했다.

● 봄철화재예방 특별경계근무

서울시 소방본부는 3월과 4월동안 봄철화재예방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해 취약업소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이번 기간동안에는 시장, 백화점, 공장 등 8천5백56개 건물에 대한 비상구확보여부와 내장재불연화 및 가연성 접착제 등 위험물질 안전관리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된다.☞